

# 青銅器時代 遺物과 社會의 變遷

安在皓  
동국대학교

## 〈 목 차 〉

1. 青銅器時代와 農耕文化 · 農耕社會
2. 時期別 考古資料의 特徵

## 1. 青銅器時代와 農耕文化 · 農耕社會

韓半島에서 青銅器時代의 시작은 農耕文化의 시작으로 보는 것에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그런데, 青銅器의 사용이나 農耕社會라든가 巨石文化의 시작 등도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青銅器의 使用이란 것도 실제 도구로서 제작될 때가 진정한 의미를 가지며, 청동기가 언제부터 출토되느냐라는 한정적인 개념만으로 접근해서도 곤란하다. 農耕社會라는 것도 농경활동으로 획득한 生産物을 媒介로 連繫되고 형성된 社會로 규정한다면 친족이나 씨족간의 자급자족적인 경제활동을 넘어, 生産과 流通을 통한 廣域의 經濟圈이 형성되는 사회단계로서 前期후반을 더 넘어서지는 못할 것이다. 支石墓의 축조라는 것도 최근에는 前期후반이라야 가능하다는 견해도 있듯이, 記念物의 조성 의미는 祖上崇拜를 통한 공동체의 결속이나 社會的 再生産 기능을 겸한 것이므로, 최소한 농경공동체의 출현과 관계된 것이다.

이런 사유를 든다면 韓半島에서의 청동기시대는 단순하지만 「普遍的 農耕文化」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다. 그런데, 최근 「新石器時代 中期農耕論」이 일각에서 주장되기도 하지만, 농경문화란 농경활동과 그와 관련된 道具體系 그리고 農耕儀禮와 같은 인간의 의식이 동반되어야 하고, 이런 문화가 특정지역에 한정되지 않고 일반화되어야만, 비로소 농경문화를 가진 집단들의 농경활동을 상징할 수 있다. 新石器時代의 農耕具라고 주장되는 도구들도 特定地域에서만 발견되고 있고, 穀物은 그 발견예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도 보편적인 농경활동의 소산으로는 보기 힘들다. 즉 농경사회는 차치해두고서라도 중기 이후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생산도구체계를 포함한 농경문화의 변이라든가 변천상을 찾아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청

동기시대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었다고 봐야하고, 이런 의미에서 농경문화를 新石器時代의 연장으로서 청동기시대를 논할 수 없다.

韓半島의 청동기시대는 中國과 접한 북쪽에서 시작하여 점차 남쪽으로 확산되었다고 봐야 하며, 漢沙里式二重口緣土器를 포함한 突帶文土器文化를 지표로 삼을 수 있다. 남한지역에서는 漢江流域이 南部地域보다는 이 문화의 受容이 이를 것이다. 따라서 자료의 검증이 가능한 남한을 두고 본 논의를 하자면, 청동기시대의 萌芽의 端初나 최초의 農耕社會도 北漢江流域에서 먼저 찾아야 하는 것이 아닐까.

## 2. 時期別 考古資料의 特徵

청동기시대의 각시기별로 유물, 취락, 묘제, 농경 등의 변천에 대해서 살펴본다. 표3은 지금까지의 성과를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1. 이형원(2009)의 남한 청동기시대 시기별 문화요소

(박천택·함은혜 외 2012)

시기	조기	전기	후기
토기	말기 즐문토기, 미사리식토기(돌대문)	미사리식토기, 가락동식토기, 역삼동식토기, 혼암리식토기	역삼동식토기 검단리식토기 송국리식토기
석기	삼각만입석촉, 반월형석도	마제석검, 삼각만입· 이단경식석촉, 반월형석도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일단병식석검, 일단경식석촉
청동기	不在	비파형동검, 동촉	비파형동검, 동촉, 동모, 동부, 동좌
주거지	미사리식주거지 주거지규모 대형 주거방식 - 공동거주형	(미사리식), 둔산식, 관산리식주거지 주거규모-대형 주거방식-공동거주형	장방형주거지 송국리식주거지 주거규모-소형 주거방식-독립거주형
분묘	不在(?)	지석묘, (주구)토광묘, 토광묘	지석묘, 석관묘, 석개토광묘, 옹관묘 등
입지	층적지	층적지, 산지, 구릉	층적지, 산지, 구릉
문화유형	미사리유형	(미사리유형), 가락동유형, 역삼동·혼암리유형	송국리유형, 역삼동유형, 천전리유형, 검단리유형

표2. 중부지역 토기編年

(강병학 2014)

서울경기지역(강병학)		강원영서지역(김권중)			강원영동지역(박영구)			
			북한강유역	남한강유역				
조기전반 (I-1기)	즐문토기적요소 돌대문토기 단독기 (돌대이격, 돌대연접)	조기 전반	I	돌대문계		조기 (I)	이중구연토기 공렬토기	
조기후반 (I-2기)	돌대문토기(돌대연접) 절상돌대문토기 류상과수형토기 이중구연토기 출현	조기 후반	II	돌대문계 이중구연계	I			돌대문계 이중구연계 공렬문계
전기전반 (II기)	팽이형토기 가락동식토기 성행기 혼암리식토기 출현 공렬, 구순각목문 출현	전기 전반	III	이중구연계 공렬문계 복합문계(돌 대문, 공렬, 구순 각목, 이중구연)	II	공렬문계	전기 전반 (II)	이중구연토기 이중구연공렬 공렬
전기중반 (III기)	가락동식토기 쇠퇴기 혼암리식토기 성행기 구순각목+공렬토기 다수 퇴화+이중구연화 진행	전기 후반	IV	공렬문계	III	공렬문계	전기 중반 (III)	이중구연공렬 공렬
전기후반 (IV기)	역삼동식토기 성행기 구순각목+공렬 구순각목, 공렬중심 퇴화+이중구연화 일부지속						전기 후반 (IV)	공렬토기

표3. 青銅器時代의 文化·社會相 變遷

時期	早期	前期			後期	
		前半	後半	末	前半	後半
聚落 立地	平地型					
	丘陵型					
	山地型					
農耕 形態	田作					
	???			火田作		
				水稻作		
聚落 構造	線狀(小規模)					
	面狀(大規模)					
	求心狀(大規模)					
大形 家屋	複數					
	單獨					
家族體	複合家族體					
	世帶共同體					
	核家族體					
高床建物	大型·中型·小型					
	超大型					
墓制	石棺墓·支石墓					
	區劃墓					
	石蓋土壙墓·甕棺墓					
武器形 遺物	石劍(住居址) (墓)					
	青銅劍					
文化·社會相	過渡期	定着期	農耕社會	階層化	首長社會	

### 1) 類型 · 樣式 · 文化

서술에 앞서 언급해 둘 것은 類型의 개념문제로서, 본래의 개념대로 특정집단의 특정시기에 국한된 유물과 유구의 총체로서 이해하고자 한다(이청규 1988, 박순발 1999). 따라서 이 類型은 樣式 전체 속에서의 어느 한 時點의 文物로서 즉 특정시기의 樣式에 해당한다. 따라서 樣式 속의 第1, 2, 3類型으로 표현할 수 있다. 즉 기존의 欣岩里類型이라는 용어를 欣岩里樣式으로 표기하고 그 속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문물을 欣岩里1樣式 혹은 欣岩里1類型이라고 하는 廣域概念으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새로운 시간單位를 찾아 소지역(집단)의 시간單位로서 欣岩里1類型, 湑沙里1類型, 素沙洞1類型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겠다.

문제의 관건은 編年の 지역單位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라는 개인적 견해 차이를 어떻게 통합하고 병행관계를 설정할 것인가가 라는 점이다. 이러한 광역의 編年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작게는 遺蹟 單位로 혹은 聚落共同體 單位로 編年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매우 많은 숫자의 類型을 설정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새로운 類型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1世代 혹은 2世代의 시간 폭에 따라 編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난제가 숨어있다. 현재처럼 청동기시대 前期를 2~3단계로 설정한다면 이 時間單位로는 類型이라고 할 수 없고, 前期 전엽 · 중엽 · 후엽 등으로만 불러야 할 뿐이다.

본고에서는 湑沙里式 · 可樂洞式 · 驛三洞式 · 欣岩里式 · 松菊里式 등의 土器 분류로써 集團으로 인식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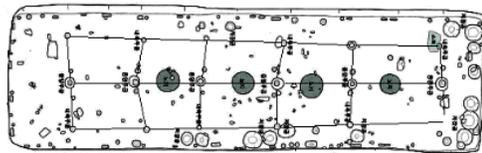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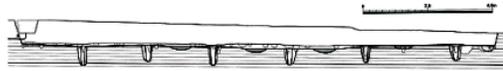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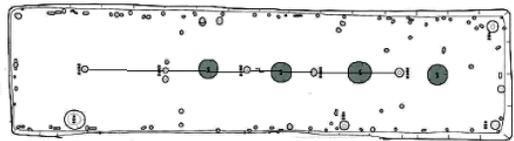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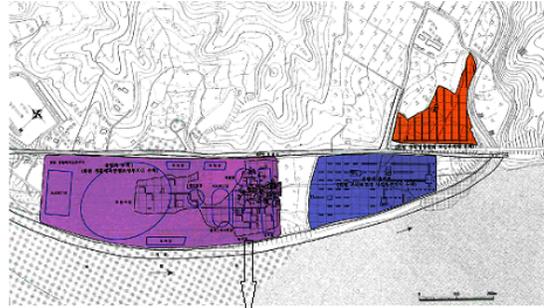
### 2) 聚落

大型聚落의 등장은 현재의 자료에만 한정한다면 前期 후반이다. 입지는 천안 白石洞遺蹟이 구릉과 산지인데 반하여, 평택 素沙洞遺蹟은 구릉지, 화천 龍岩洞遺蹟은 강변 충적지이다. 이 취락은 모두 驛三洞式 혹은 欣岩里式 土器集團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湑沙里式 · 可樂洞式 土器集團은 소규모취락을 이루고 있다. 전자의 세 遺蹟은 평면 세장방형의 주거지에 土壙式爐址와 中央1列式柱穴이 설치된 관산리식주거지가 지표이고 간혹 2列式柱穴이 복합되는 경우도 있다(도1). 2段莖式石鏃 · 有溝2段柄式石劍이 출토된다. 이러한 大型聚落은 地域共同體의 據點聚落과는 다르고, 아직은 가옥의 구성원은 複合家族으로서 혈연적관계를 중시하는 사회이다. 취락내에서 特定家屋이 입지의 우월성이나 구심적인 양상을 띠지 않으며 가옥들이 面狀으로 分散된 형태이다.

前期末 혹은 後期가 되면서 據點聚落이 등장한다. 특히 前期末에는 大型聚落을 이루는 집단으로서 可樂洞式土器集團은 보이지 않고, 동남해안권에서는 欣岩里式土器集團이라고 분류할만한 취락이 있지만 이것도 驛三洞式土器集團이 可樂洞式土器文化를 수용한 결과로서 그

주체는 역시 驛三洞式土器集團이라 판단된다. 춘천 천전리유적, 보령 관창리유적, 부여 송국리유적, 청도 진라리유적, 경주 어일리유적, 울산 검단리유적, 진주 대평리유적 등이 대표적인 前期末~後期の 據點聚落이다. 대부분 취락의 인근에 墓地가 조성되어 있으며, 大型住居 1동을 求心點으로 한 聚落構造를 보인다. 다만 경주 울산의 동남해안지역에서는 묘역은 발달하지 않는다. 취락의 입지는 前期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조금 저지대로 이동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 시기부터 土器, 玉, 石劍, 青銅器 등의 生産과 농경활동을 기반으로 據點聚落간의 교류가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前期의 토기문양으로 식별되던 집단의 정체성은 소멸되고, 여러 집단의 연합 또는 통합으로 地域共同體를 형성한 것이 시기적 경향이라 생각된다. 그 배경에는 首長의 등장으로 집단간의 경쟁과 공동체의 성장이 있었다고 추정된다.

무덤은 군집을 이루는 區劃墓가 중심이며, 조상숭배와 함께 始祖墓를 중심으로 배열된다. 이 공동묘역을 통하여 地域共同體가 결속되고, 의례 활동도 많아진다. 즉 前期의 自然神에서 後期の 祖上神을 대상으로 거행되는 의례행위는 결국 지역 정체성을 찾게 되고, 그 결과로서 赤色磨研土器와 石劍 등의 地域色을 가지게 된다. 또한 據點聚落에서는 超大型의 高床建物도 축조된다.



도1. 화천 龍岩里遺蹟 1단계취락 (김권중 2007)

상 : 93호주거지, 하 : 77호주거지

3) 磨製石劍

마제석검은 주로 부장품으로 출토되는 예가 많지만, 주거지에서는 파손된 채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재활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석재의 성격일 것이라 추정된다. 그런데 최초의 마제석검은 무덤의 부장품이 아니라 住居址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아직 정형화되지 못하고 小型이지만, 도2의 2~4는 모두 1段柄式을 띠지만, 鑕部



도2. 初期의 石劍 (1/3)

- 1 : 홍천 외삼포리 5호주거지,
- 2 : 대전 둔산 2호주거지, 3·4 : 익산 영등동 1-17호·3호주거지, 5 : 경주 금장리 8호주거지

는 有溝2段柄式의 형태를 갖추고 있으며, 3의 석검은 병부에 두 줄의 線刻으로 역시 2段柄式의 특징으로도 보인다.

다만 1의 석검은 크기나 형태에서 정형화된 것이며, 最古式의 유구이단병식석검으로 간주되고 있다(김권중·남귀희 외 2008). 필자도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었으나, 동해안형이라는 지역색을 논한 연구(박선영 2009)로써 반드시 최초의 석검이라고만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 석검과 토기와와의 공반에서 간단히 논하여, 석검의 출현시점과 양상에 대해서 살피고자 한다.

표4. 초기 석검이 출토된 주거지와 공반유물

주거지	토기	주거지형식	탄소14연대
외삼포리 5호	각목돌대문, 瘤狀돌대문, 澁沙里式이중구연	澁沙里式	BC.1540-1120(93.9%)
둔산 2호	可樂洞式토기	澁沙里式	
영등동 1-3호	鷄冠狀돌대문, 可樂洞式토기, 구순각목문	대울리식	
영등동 1-17호	可樂洞式토기	대울리식	
금장리 8호	각목돌대문, 구순각목문	불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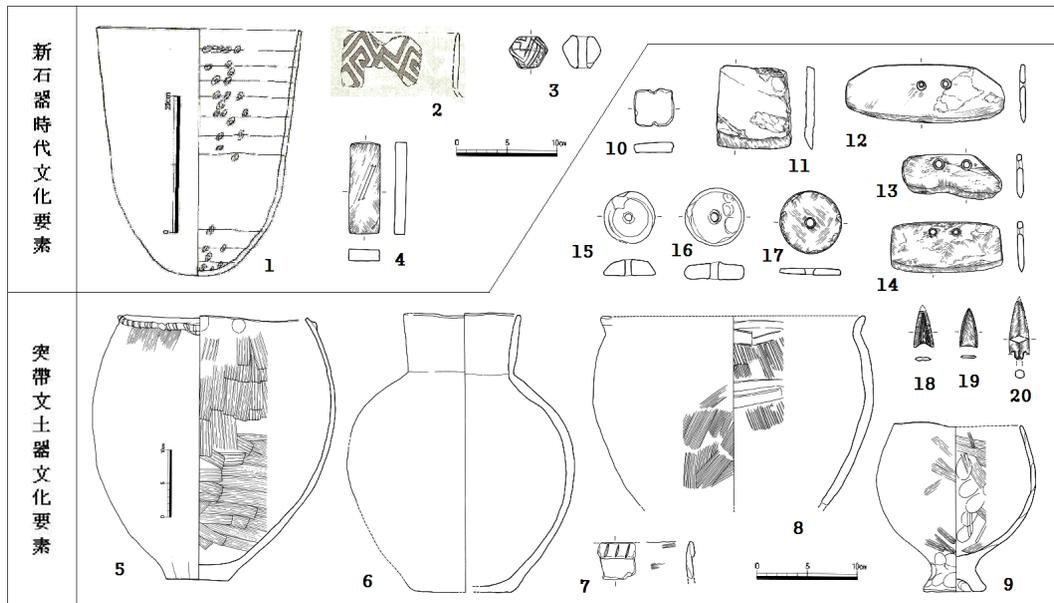
표4는 도2의 각 주거지에서 출토된 토기를 적은 것이다. 초기석검은 澁沙里式·可樂洞式土器集團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可樂洞式土器를 早期부터 突帶文土器와 공반하는 澁沙里式二重口緣土器의 韓半島化된 것으로 본다면, 최초의 마제석검은 可樂洞式土器集團에 의해서 제작된 것이라고 보고 싶다. 그 시기에 대해서는 공반된 토기상으로만 본다면 홍천 외삼포리 5호주거지가 가장 빠르다고 하겠다. 그런데 여기서 출토된 석검은 다른 주거지출토품보다는 전형적인 이단병식인 점에서 오히려 늦은 것이 아닌가도 의문이 든다.

5호주거지에서는 突帶文土器의 퇴화형이라고 볼 수 있는 류상돌대문은 可樂洞式토기나 구순각목문과도 공반하는 경우가 있고, 또 탄소14연대에서 가장 늦은 시기 BC.12세기를 택할 수 있다면, 前期 전반의 이른 시점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다. 따라서 이것만으로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반드시 早期의 석검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여유를 둘 필요도 있다.

이런 가정에서 전형적인 유구이단병식석검은 前期 전반에는 출현하였으나, 그 이전의 또는 아직 突帶文土器의 전통이 남아있는 可樂洞式土器集團에서는 비전형화된 소형석기를 제작하였다고 보고 싶다. 그러다가 사회화가 이루어지는 前期 후반에는 묘의 부장품으로서 각 지역마다 지역색을 띠게 제작되었을 것이다.

#### 4) 無文土器

新石器時代의 요소를 초기 突帶文土器集團 속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은, 진주 평거동유적 주거지에서 출토된 호형토기의 경부에 채색된 雷文(도3-2), 圓底토기(도3-1), 토기의 修理孔, 把持하여 사용할 수 있게 평면 장방형으로 제작된 小型의 砥石(도3-4), 籌板알형 紡錘車(도3-3) 등이 있다. 이에 반하여 突帶文土器集團의 요소로서는 突帶文土器 이외에도 漢沙里式二重口緣土器(도3-7), 外傾口緣甕(도3-8), 甕形의 內彎口緣土器(도3-5), 大型壺, 臺附土器(도3-9), 적색 마연토기, 반월형석도(도3-12~14), 方型의 扁平石斧(도3-11), 短身磨製의 無莖式石鏃(도3-18·



도3. 청동기시대 初期의 재지계와 외래계 문화 요소

1 : 하남 漢沙里遺蹟 KC-015호 주거지, 2 : 진주 평거동3-1지구遺蹟 3호 주거지,  
3~20 : 정선 아우라지遺蹟 1호 주거지.

19), 二段莖式石鏃(도3-20), 方形板狀의 兩挾式 土製漁網錘(도3-10), 半球狀·板狀 紡錘車(도3-15~17)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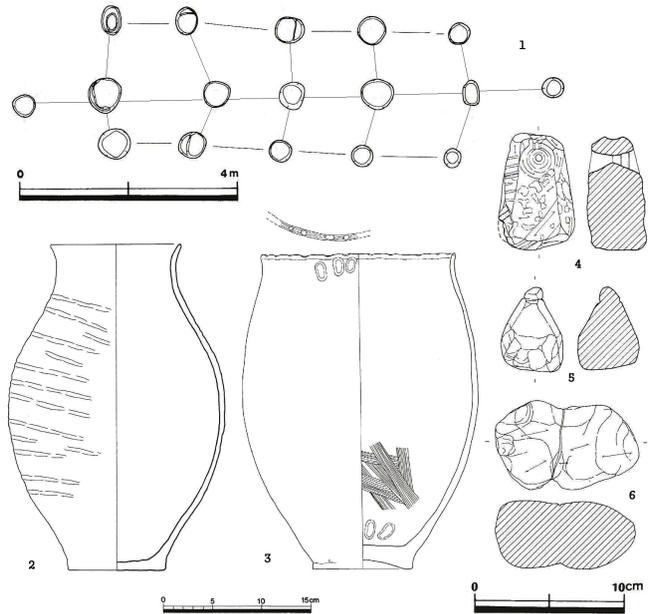
어로채집중심의 新石器時代에서 농경중심인 청동기시대로의 변화는 도구의 변화와 함께 食文化를 대변하는 토기의 변화일 것이다. 특히 新石器時代와는 다른 토기·도구 체계를 가졌다면 농경문화를 자생적이기보다는 외부로부터의 전파로 보아야 한다. 더구나 토기 구성이나 형태적 차이는 種族의 차이로서 移住를 상정해야 할 것이다. 초기에는 移住民의 生計패턴에 최적화된 옹형토기와 호형토기의 비율이 높는데, 이것은 재지계라고 할 수 있는 新石器時代의 심발과는 확연히 차별을 보이는 기종구성이었다. 그 뒤 前期에는 可樂洞式土器集團이나 驛三洞式土器集團 혹은 欣岩里式土器集團에서도 口頸이 넓은 심발 중심에 소수의 대형호로 토기구성이 이루어진다. 심발이나 초기의 옹은 煮沸器로서 食文化와 직결된 요소라고 보아도 좋겠다. 필자는 옹형에서 심발로의 변화는 食文化의 新石器時代로의 복귀로 인정할 만큼 채집생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은 아닌지 고려하고 있다. 前期의 심발중심이 後期가 되면서 다시 옹형화로 변화하고, 호의 경우도 외반구연토기 즉 松菊里式토기로 발전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농경이 우세한 食文化로 정착하였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松菊里式토기를 여전히 사용하지 않은 동남해안권이나 경기-강원권은 여전히 前期의 食文化 전통이 그대로 이어진다고 봐야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남한에서 後期の 선진적 지역을 松菊里式토기의 출토량을 통하여 짐작할 수도 있겠다.

토기의 문양은 그나마 시기구분 정도에는 유용할지 몰라도 編年에는 부적당하고, 오히려 기형의 변화에 주목하여야 한다. 청동기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상상하면 토기는 매년 만들어지고 그때마다 어떤 규모의 형태를 성형할지 결정하게 되는데, 그 제작시점마다 그 집단의 그 시대적 맞춤형에 따라 형태가 결정되는 것이다. 여기에 비하여 문양의 시문은 제작 전공정에 비하여 매우 적은 것이고 그만큼 기술사적인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 5) 松菊里文化의 對外交渉

필자는 송국리문화가 前期문화의 발전형이라 하여 「松菊里文化 在地系說」을 주장하고, 각 지역마다의 地域色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松菊里式住居址 중에서 검단리형을 설정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성과를 종합하면 동남해안권에는 송국리문화의 요소가 일부 혼재하기는 하지만, 검단리문화권으로 판단되었으므로 검단리형의 松菊里式住居址를 설정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리고 1979년 국립박물관에 의해 유발된 「松菊里文化 外來系說」은 그 당시 고고자료의 부족으로 단순한 의문에 불과한 것이었다. 그 뒤 이홍종을 필두로 한 外來系說派는 文化接變으로써 필자의 先松菊里樣式을 반박하였다.

이흥중(2006)의 주장에서 중서부해안지역의 寬倉里式土器가 가장 이른 시기의 松菊里式土器이며, 여기에 사용된 打捺技法은 中國 山東半島에서 전파된 製陶術이라는 견해(深澤芳樹·李弘鍾 2004)를 주목할 만하다. 이와 함께 고찰할 것은 청동기생산의 문제로서, 前期末 혹은 後期가 되면서 무기형청동기가 필요한 사회에 이르게 되었고, 비로소 韓半島에서도 입수 혹은 제작하게 되었다고 생각된다. 靑銅器는 舍金이므로 무엇보다 재료의 공급이 우선된 문제였을 것이다. 同位元素分析(김규호·김나영 외 2012)에 따르면 세형동검시기



도4. 보령 관창리유적

- 1 : (B지구)KB-204호 고상가옥, 2 : (F지구)12호 주거지,
- 3 : (B)KC-057호 주거지, 4 : (B)KC-063호 주거지,
- 5 : (B)KY-818호 요지, 6 : (B)KC-010호 주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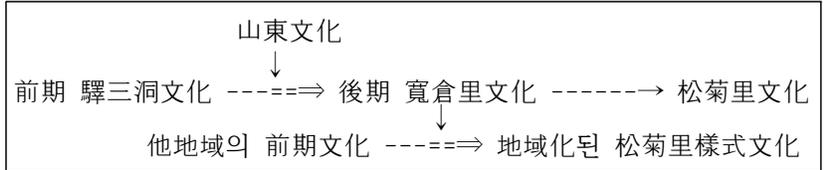
뿐만 아니라 琵琶形銅劍도 재료의 產地가 韓半島産 이외에도 中國産 특히 周나라의 靑銅器와 유사성이 높다는 점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山東에 자리한 中國 춘추시대의 齊나라와 古朝鮮과의 교역을 기록한 《管子》이다. 古朝鮮의 호피를 대상으로 이루어진 교역은 비단 7세기만 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소문이 나있었다고 하므로(송호정 2003), 청동기시대 後期 이른 시점부터도 山東과의 海路는 열려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중서부해안지역까지도 교역지로서 알려져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상 3개의 팩터를 통하여, 松菊里文化의 형성에는 中國 山東半島와의 교섭을 통한 文化的 衝擊이, 前期社會를 일깨워 首長社會로 進入하게 만든 動因이었다고 추정한다. 관창리유적(李弘鍾·姜元杓 외 2001)에서는 土器窯의 群集化라든가, 度量衡의 존재를 示唆하는 다양한 형태의 할석제 혹은 사암제의 石錘(도44~6), 그리고 獨立棟支柱高床家屋(도41) 등이 출현하는 先進性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물도 결국은 中國과의 交渉을 통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관창리유적의 打捺土器는 無文土器인이 제작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打捺技法으로 토기를 만들어 왔던 소수의 山東人이 주도하여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寬倉里式土器의 原型은 前期末의 驛三洞式土器이고, 이것의 口頸部를 외반시켜 寬倉里式土器(도4-2)가 제작되었다

고 추정하고 싶다. 그리하여 점차 口頸이 짧게 변천하여 外反口緣長胴(도4-3)의 松菊里式土器로 변천하였다.

한반도내에서 松菊里文化의 發生을 이견무(1992)가 외래기원설에 입각하여 一元的發生을

표5. 松菊里文化의 形成過程



--- 繼承, → 影響, => 變革

주장한 반면 筆者는 多元的發生으로 보았다. 그러나 옹형의 외반구 연호 즉 松菊里式土器가 무문토기

전체에서 가장 發達한 器形이며, 그 數나 頻度가 가장 높은 지역을 先進化된 지역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송국리식토기의 발생은 적어도 中西部地域임은 틀림없다고 해야 하겠다. 그래서 토기를 중심으로 한 송국리문화의 형성과정을 표5와 같이 假說로 제시해 두고자 한다. 물론 松菊里文化를 構成하는 요소 중에는 住居, 靑銅器, 墓制, 石器 등등의 문제는 표5의 과정과는 다르게 형성되어 복합될 수도 있다는 점을 언급해두고자 한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대치되어 온 송국리문화의 발생과 전개과정에 대한 각파의 주장에서 사실로 인정할만한 요인들로 재구성한 결과이다.

〈참고문헌〉

- 강병학, 2014, 「토기연구의 현황과 문제점」『유물연구, 어떻게 할 것인가?』 한국청동기학회.
- 姜秉學·蔡娥覽 외, 2008, 『平澤 素沙洞 遺蹟』 高麗文化財研究院.
- 김권중·남귀희 외, 2008, 『洪川 外三浦里 遺蹟』 江原文化財研究所.
- 김권중·홍주희 외, 2008, 『泉田里』 江原文化財研究所.
- 김규호·김나영 외, 2012, 「동합금 유물의 재질 및 특성 분석」『광주 역동유적』 한얼문화유산연구원.
- 朴光烈·金大德 외, 2006, 『慶州 金丈里 遺蹟』 聖林文化財研究院.
- 朴宣映, 2009, 「朝鮮半島中南部における有柄式磨製石劍の編年と地域性」『考古學研究』 第56卷 第1号.
- 朴淳發, 1999, 「欣岩里類型 形成過程 再檢討」『湖西考古學』 1, 湖西考古學會.
- 박천택·함은혜 외, 2012, 『광주 역동유적』 한얼문화유산연구원.
- 송호정, 2003, 『한국 고대사 속의 고조선사』 푸른역사.
- 深澤芳樹·李弘鍾, 2004, 「松菊里式土器におけるタタキ技法の検討」『2002年度 共同研究成果報告書』 大阪府文化財センター.
- 安在晧, 2010, 「掘立柱建물이 있는 청동기시대 聚落相」『한국고대의 수전농업과 수리시설』 한국고고환경연구소편, 서경문화사.
- 吳相卓·姜賢淑, 1999, 『寬倉里遺蹟』 亞洲大學校博物館.
- 尹世英·李弘鍾, 1994, 『溟沙里』 第5卷, 高麗大學校發掘調查團 編
- 윤호필·고민정 외, 2011, 『진주 평거 3-1지구 遺蹟』 慶南發展研究院 歷史文化센터.
- 李康承·朴淳發, 1995, 「新石器·青銅器時代 遺蹟 調査」『屯山』 忠南大學校博物館.
- 李健茂, 1992 「松菊里型 住居分類試論」『擇窩許善道先生停年紀念 韓國史學論叢』 一潮閣.
- 李清圭, 1988, 「南韓地方 無文土器文化의 展開와 孔列土器文化의 位置」『韓國上古史學報』 第1號, 韓國上古史學會.
- 이홍중, 2006, 「무문토기와 야요이토기의 실연대」『한국고고학보』 60, 한국고고학회.
- 李弘鍾·姜元杓 외, 2001, 『寬倉里 遺蹟』 高麗大學校 埋藏文化財研究所.
- 조성호·정원철 외, 2011, 『정선 아우라지 遺蹟』 江原文化財研究所.
- 池賢柄·金權中 외, 2007, 『龍岩里』 江原文化財研究所.
- 崔完奎·金鍾文 외, 2000, 『益山 永登洞 遺蹟』 圓光大學校 馬韓·百濟文化財研究所.